

## 본당 소식

2024년 2월 생활말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사랑으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1코린 16.14).”

- ♣ 미사 시작 10분 전, 목주기도 시 침묵을 지킵시다.
- ♣ 사순 판공성사는 1층 Sala giochi에서 드립니다.
- ♣ 공동체 함께 성경 읽기(주님 성탄 대축일까지)
- ♣ 성가대 음악회 안내
  - 주제: La melodia in primavera(봄의 멜로디)
  - 일시: 3월 3일, 교중미사 후(오라토리오)
- ♣ 오는 3월 1일에는 십자가의 길 기도가 없습니다.
- ♣ 성당 창고 사용 안내
  - 성모회, 주일학교, 성가대 비품 보관 이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상시 정리 부탁드립니다.

- ♣ 봉사자
  - 계단,화장실: 박진희 레지나
- ♣ 지난 주일 우리의 정성
  - 봉헌금 358.30€ · 교무금 400.00€

### 전례 성가

입당 : 124 (은혜로운 회개의 때)  
봉헌 : 213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 할때)  
성체 : 162 (성체 성혈 신비), 172 (그리스도의 영혼)  
파견 : 119 (주님은 우리 위해)

### 전례 봉사

이번 주일(25일)	다음 주일(3일)
1독서: 박진희 레지나 2독서: 민재희 세바스티안 복 사: 이가는 마리아판체아, 김사빈 엠마	1독서: 윤상돈 알렉산드로 2독서: 김산영 율리아 복 사: 변가인 헬레나, 김사빈 엠마

## 밀라노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CHIESA SANTI MARTIRI COREANI Oratorio di San Rocco al Gentilino (Piazza T. Lucrezio Caro 7, Milano)

본당신부 : 조병진 베니노

총회장: 정명룡 미카엘 부회장: 변의용 베네딕토 총무: 이승원 비오

1구역장: 우윤정 마리아 2구역장: 강한 프란치스코

청년구역장: 이승지 로사리아 전례위원장: 허희숙 마리아 성모회장: 박수정 클라라 청소년위원장:

이승준 다니엘 대외협력위원장: 김산영 율리아

## 2024년 02월 25일 (자) 사순 제2주일

### 미사 전례

#### 본기도

하느님,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따르라고 명하셨으니  
하느님의 말씀으로 저희 믿음을 복돋아 주시고 영혼의 눈을 맑게 하시어  
저희가 하느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나는 - 주님앞에 서 걸어가리 라 살아있는 이들의땅에서 걸으리라

#### 화답송

- “나 참으로 비참하구나.” 되뇌면서도 나는 믿었네. 주님께 성실한 이들의 죽음이 주님 눈에는 참으로 소중한네. ☉
- 아, 주님, 저는 당신의 종. 저는 당신의 종, 당신 여종의 아들. 당신이 제 사슬을 풀어 주셨나이다. 당신께 감사 제물 바치며 주님 이름 부르나이다. ☉
-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 나의 서원 채우리라. 주님의 집 앞에서, 예루살렘아, 네 한가운데에서. ☉

## 제1독서 (창세기 22,1-2.9-10-13.15-18)

그 무렵 1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자,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2 그분께서 말씀하셨다.“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사악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그곳, 내가 너에게 일러 주는 산에서 그를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9 그들이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곳에 다다르자,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장작을 얹어 놓았다.  
 10 아브라함이 손을 뻗쳐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 하였다.  
 11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12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해도 입히지 마라.  
 네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나를 위하여 아끼지 않았으니,  
 네가 하느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다.”  
 13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 덩불에 뿔이 걸린 숫양 한 마리가 있었다.  
 아브라함은 가서 그 숫양을 끌어와 아들 대신 번제물로 바쳤다.  
 15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  
 16 말하였다. “나는 나 자신을 걸고 맹세한다. 주님의 말씀이다.  
 네가 이 일을 하였으니, 곧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17 나는 너에게 한껏 복을 내리고,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한  
 꺾 번성하게 해 주겠다. 너의 후손은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18 네가 나에게 순종하였으니,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너의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8,31-34)

형제 여러분,  
 31 하느님께서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32 당신의 친아드님마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 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드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33 하느님께 선택된 이들을 누가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의롭게 해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34 누가 그들을 단죄할 수 있겠습니까?  
 돌아가셨다가 참으로 되살아나신 분, 또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 복음환호송

◎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빛나는 구름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

## 복음 (마르코 9,2-10)

그 무렵 2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다.  
 3 그분의 옷은 이 세상 어떤 마천장이라도 그토록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4 그때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5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6 사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제자들이 모두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이다.  
 7 그때에 구름이 일어 그들을 덮더니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8 그 순간 그들이 둘러보자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그들 곁에 계셨다.  
 9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10 그들은 이 말씀을 지켰다. 그러나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저희끼리 서로 물어보았다.

## 보편 지향 기도

-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빛이신 주님, 주님의 교회를 일깨워 주시어, 제자들을 주님 변모의 영광에만 머물지 않게 하셨듯이 교회도 제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세상 한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소서.
- 2. 공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보호자이신 주님, 국민에게 봉사하는 삶을 사는 공직자들을 돌보시어, 그들의 높은 뜻이 보람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믿음과 희망으로 힘차게 나아가도록 도와주소서.
- 3.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참스승이신 주님, 배움의 길을 걷는 학생들을 지켜 주시어,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과 모든 것에 진심으로 다가가며 즐겁고 기쁘게 생활하게 하소서.
- 4.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 복음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저희를 살피 주시어, 저희가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데 주저함이 없도록 용기를 주소서.

## 영성체 후 기도

주님, 영광스러운 성체를 받아 모시고 감사하며 비오니  
 저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천상 행복을 미리 맛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